

콜럼버스 교구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kc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본당 소식

- ◆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시기**입니다. 판공성사를 통해 주님의 성탄을 잘 준비하는 복된 대림시기 맞으시기 바랍니다.
- ◆ 성탄 판공성사 (교백성사) 안내
 - 일시: 오늘 미사 전후
 - 신시내티 한인본당 신부님께서 판공성사를 집전하십니다.
 - 성사를 보신 후 판공성사 확인표에 성함, 세례명, 구역명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수 성탄 대축일 미사 안내
 - 성탄 전야 미사: 12월 24일(수) 저녁 7:30
 - 성탄 낮 미사: 12월 25일(목) 오후 1:00
- ◆ 다음 주일 (12월 28일)부터 **주일학교 방학**이 시작됩니다. 다음 학기 개학은 2009년 2월 1일입니다.
- ◆ 12월 **병자봉성체**는 넷째 주일 (12월 28일)로 연기되었습니다.
- ◆ 지난 주 **자선주일 2차헌금**으로 \$1,367 이 모였습니다. 참여하신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금액은 본당 빈첸시오회 봉사활동과 Holy Family Church Soup Kitchen 을 위해 쓰여집니다.
- ◆ **구역장 교육**
 - 일시: 12월 28일 주일미사 후
 - 장소: Holy Family Church (Parish Center)
- ◆ 2009년 월간 **매일미사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광광주 예로니모 형제님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친교 준비 봉사자**
 - 12월 21일: 고상식
 - 12월 28일: 김영천
- ◆ **12월 친교 후 정리 봉사**: 김재준 구역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538.00
교 무 금	\$1,600.00
감 사 헌 금	\$200.00
자선주일 2차헌금	\$1,367.00

- **교 무 금**: 이영수 이경환 김정일 김상욱 김영천 조도순
- **감사헌금**: 박성혜 유경숙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Korean Catholic Community

대림 제4주일 December 21, 2008



<주님 탄생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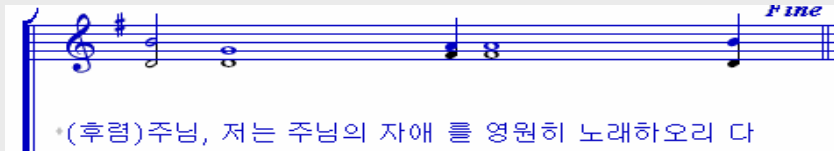
프라 안젤리코 (1399-1455), 템페라, 프라도 미술관, 마드리드, 스페인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사무엘기 하권 7,1-5.8㉔-12.14ㄱ.16
 “다윗의 나라가 주님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질 것이다.”

화답송



제 2 독서 로마서 16,25-27
 “오랜 세월 감추어졌던 신비가 이제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 1,26-38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다.”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220단	2명	3,260단	23명
이호영	108단	1명	14,945단	91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150단	1명	7,460단	78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기타	단	명	130단	3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478단	4명	2/22/04~12/14/08 (252주)	

☞ 총누계: 206,915단 12,715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12월 21일	12월 28일
해설자	신현태	곽광주
독서/봉헌	김제준 구역	김효임 구역
보편지향 기도	상지의 옥좌	십자가의 모후

오늘의 성가

♫ 입당: 96 ♫ 봉헌: 216
 ♫ 성체: 152 165 ♫ 파견: 481

생명의 말씀

마리아의 믿음과 예수님 오심

박성철 미카엘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공통된 심리적 단계를 거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부정-분노-흥정-우울-수용의 단계가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 받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부정의 단계가 나타납니다. “내가 아직 이렇게 젊은데 그럴 리가 없어. 이 검사는 잘못된 거야!” 이어서 분노의 단계가 나타납니다. 하느님에게 화를 냅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다니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도 분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흥정의 단계가 나타납니다. “주님, 낮게만 해주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까!” 그러나 흥정도 소용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깊은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단계는 수용의 단계입니다. 부정도 분노도, 흥정도 우울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고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패배의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죽음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순간일 것입니다.

이 다섯 단계는 영적인 성장 과정에서도 발견됩니다. 천사가 전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부정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혼란에 빠집니다. 두려워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을 사건입니다. 약혼이 파기될 수도 있고, 율법에 따라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도 흥정을 벌였는지 모릅니다. “다른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만은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어렵고 힘겨운 상황입니다. 고뇌와 갈등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리아의 위대함이 발휘됩니다. 남들은 여전히 부정하고 분노하고, 흥정하고 우울의 늪에 빠져 있을 때, 마리아는 앞으로 한 걸음 크게 내딛고 있습니다(百尺竿頭進一步 백척간두진일보). 위대한 수락과 수용의 순간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들이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신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마리아의 비장함이 느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느님께 자신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자신을 하느님께 송두리째 맡겨 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아기 예수님이 세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열린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참으로 잃음으로써 얻고, 죽음으로써 다시 사는 것인가 봅니다. 믿음은 마리아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순백색의 마음! 그래서 오늘 대림 4주일에 우리는 흰색의 초에 환하게 불을 켜었습니다.